

“디지털금융·지속가능경영 답을 찾아”

조용병 회장, 글로벌 행보

(신한금융그룹)

열흘간 캐나다·미국 출장

CI인베스트먼트 등 연금운용사 방문 전략설명·브릿지포럼 등 참석키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첫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은 14일 조 회장이 열흘간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으로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규 투자자 유치를 확대하고,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 회장은 취임 이후 아시아 리딩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표한 그룹의 핵심 전략인 ‘2020 스마트(SMART) 프로젝트’의 성과를 해외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폭넓은 글로벌 행보를 지속해 왔다.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9개국 11개 도시에 방문해 총 58개의 해외 투자자

및 글로벌 기업들과 미팅을 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UAE, 말레이시아, 호주 방문해 아부다비 투자청 (ADIA), 말레이시아 고용연금(EPF), 호주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플래티넘 인베스트먼트 등 글로벌 연기금 등을 장기투자자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출장에서는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AGF 인베스트먼트, 매켄지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CI 인베스트먼트 등 캐나다 연금을 운용하는 초대형 운용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서는 캐피탈 월드 인베스터스 등의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방문해 신한에의 중장기 전략 및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자본시장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브릿지포럼(Bridge Forum)에도 참석한다. 이 포럼은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주관하며,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과 실리콘밸리 기술(Tech)기업을 연결

하는 역할을 한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투자청 최고경영자(CEO)와 일대일 면담을 갖고, 신한에의 디지털 전략 및 그룹의 디지털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주요 테크기업 CEO들을 만나 최근 디지털 환경과 변화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하는 일정도 잡아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조 회장의 해외 출장은 글로벌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장기투자자들로부터 신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과 지속가능경영(ESG) 분야에서도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AGF 인베스트먼트 등 ESG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2020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해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의 책임은행원칙(PRB) 제정 참여와 그룹의 환경비전인 ‘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 선포, 그룹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eroes)’ 출범 등 그룹차원의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EGS 활동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영국과 북유럽 등 ESG 투자에 관심이 높은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노르웨이 국부펀드(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네덜란드 연기금(APG) 등 ESG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를 직접 방문해 신한금융의 ESG를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덱스터 주요 수주잔고 현황>

(단위:십억원)

프로젝트	수주총액	수주잔고	수주일자
아스달연대기	8.4	4.3	18.09.17
완다우시파크	6.8	3.7	17.12.31
에버축산파크	6.5	5.7	18.04.10
완다쿰밍파크	5.5	4.3	18.05.31
프로젝트A	2.7	2.7	19.01.15
전투	1.4	1.2	18.07.17
기타	24.0	9.1	-
총계	55.3	30.9	-

/자료=덱스터, 리서치알음

* 2019년 수주계약 공시내용 반영

국내 시각특수효과 시장 ‘30%점유’ 1위

株라쿨라의 종목 덱스터

올 겨울 영화 ‘백두산’ 개봉 앞둔 회사 ‘덱스터픽처스’ 자체제작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역대 최대 사전 예매기록을 갱신했다. 총 제작비의 3분의 1 이상에 VFX(Visual Effects)가 활용되는 만큼 이번 영화 개봉에 맞춰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4일 국내 VFX 시장의 3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덱스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덱스터는 국내 1위의 시각특수효과(VFX) 전문업체다.

지난해 실적은 다소 부진했다. 큰 폭의 외형성장을 이뤘지만, 수익성 개선이 시장의 기대에 못미쳤다.

최 연구원은 “공동제작사로 참여한 <신과함께> 시리즈가 크게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덱스터의 관련 매출이 97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 겨울 개봉을 앞두고 있는 블록버스터 <백두산>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배우 이병헌과 하정우, 마동석 등이 출연하는 <백두산>은 덱스터의 자회사인 덱스터픽처스를 통해 자체 제작하는 오리지널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지적재산권) 영화로, 제작매출을 포함해 VFX 관련 용역, 투자수익, 제작수익, 판권수익 등이 모두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영화 제작이 시작되면서 자회사 덱스터픽처스는 이미 관련 제작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한·중간의 사드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 중국향 매출이 다시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중국향 VFX 프로젝트 공급계약 해지가 2017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영업적자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넷플릭스나 아마존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총 제작비 120억원이 투자된 킴지 시즌1의 흥행으로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속도 더하는 박재식의 저축은행중앙회 혁신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중앙회, 5개분야 직원채용 공보·홍보팀 통합… 전문가 채용중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대적인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로 일반(일반, 회계), IT(IT일반, UX·UI디자인, 웹기획) 등 총 5개 분야의 신입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인사채용을 진행한 후, 하반기 경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추가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저축은행업계의 디지털·비대면 영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내 79개 저축은행을 관리하는 중앙회로서 회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인 디지털뱅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출시하거나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사에게 전산을 제공하는 중앙회에서도 이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또 채용된 인력을 통해 ‘SB톡톡’ 앱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SB톡톡은 중앙회의 모바일 앱이다. 중앙회는 기존 앱이 제공하는 예·적금 계좌 개설 서비스와 더불어 대출 등 여신 기능을 추가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개선된 앱은 심사를 끝내고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9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보팀과 홍보팀을 홍보실로 합쳤으며, 현재 홍보 전문가를 채용 중이다. 홍보 기획·운

영 인력은 중앙회의 홍보 계획 수립과 더불어 광고·홍보영상을 기획하고, 사회공헌활동 등 행사를 기획 및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회의 한 고위 임원에 따르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이 취임할 당시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며 “하나는 저축은행업권의 규제 완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의 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회장이 취임 당시 주변에서 들어온 축하 난을 판매해 직접 지역 주민센터에 그 수익금과 쌀을 기부했던 것 또한 이미지 제고 방안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설을 맞아 취임 당시 받은 축하 난을 판매한 수익금과 축하 쌀을 중앙회가 소재한 지역인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쌀은 박 회장의 취임 축하난을 임직원들에게 판매해 조성한 기부금 100만원과 쌀 450kg으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홍민영 기자 hong93@

글로벌경기 회복… 국내 주식형펀드 0.72%↑

주간펀드동향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외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다만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반영되면서 주식형펀드의 자금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4월 5일~11일)간 전주 대비 0.81% 상승한 2224.44포인트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

선행지수 지표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다.

외국인의 8992억원 순매수세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0.23% 상승한 2147.61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 역시 전주 대비 0.63% 상승한 1087.49를 기록했다

/손영지 기자

신한銀 김해중앙지점 ‘일요 송금센터’ 운영

신한은행은 경남 김해중앙지점을 외국인 특화 점포로 추가 지정하고 ‘일요 송금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해중앙지점 일요 송금센터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전, 해외송금, 계좌신규, 카드 발급, 출국만기 보험 지급대행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외국인 고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직원들도 배치했다. /안상미 기자